



신희준 루도비코 신부 | 양천성당 주임 겸 제18양천지구장

| 너그러운 마음 갖기!

오늘 복음 말씀에서 개인적으로는 “하느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의 집에는 거처할 곳이 많다”(요한 14,1-2)는 말씀이 마음에 와닿으면서, 여러 생각의 나래를 펼치게 해줍니다.

우선, 하늘나라에 가게 되면 집 걱정은 안 해도 되겠구나 싶은 안도감이 듭니다. 또 물론 개개인마다 입장이 다를 수 있겠지만, 적어도 하늘나라에서는 집은 사는 곳이지 투기의 대상이 되는 곳은 아니겠다 싶은 생각에 미소를 짓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 내가, 우리가 살 곳이 충분히 있다는 예수님의 약속은 무엇보다도 큰 위안을 줍니다. 이보다 멋진 구원 약속이 어디에 있을까요?

둘째로,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어떤 사람이든지 상관없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말씀에서 우리 하느님이 얼마나 마음이 넓은 분이신가 감탄하게 됩니다. 내가 구원받을 만한 어떤 업적을 이루어냈건 이루어내지 못했던 상관없이, 혹은 내가 키가 크고 잘생겼건, 키가 작고 못생겼건 상관없이, 혹은 피부나 출신지나 학위 등 무엇도 상관없이, 우리 모두를 받아들일 만큼 하느님의 마음은 크고 넓다는 말씀으로 이해하게 됩니다. 또 그렇다면 이렇게 포용력이 크신 하느님의 자녀인 우리들 역시 이런 넓은 마음을 받아들여 우리 안에 있는 온갖 편견의 벽을 무너뜨리고 차별 없이 모든 이를 대하도록 예수님의 초대를 받고 있습니다.

셋째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닮은 넓은 마음으로 세상에 하느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데 일조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점입니다. 흔히 ‘신천지’ 내지 ‘JMS’ 같은 잘못된 유사종교에 빠지는 이들을 보면, ‘이’ 세상에 대한 관심은 없으면서 ‘저’ 세상에 대한 관심만 과도하게 많은 이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면서 ‘저’ 세상에서는 주목도 받고 권력도 누리는 ‘한 자리’를 차지할 거라는 ‘저 세상 한탕주의(?)’에 빠져있는 건 아닐까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우리는 이 세상 한가운데에서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면서 평화를 이루도록 부르심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제단에 예물을 바치려고 하다가, 거기에서 형제가 너에게 원망을 품고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거기 제단 앞에 놓아두고 물리가 먼저 그 형제와 화해하여라. 그런 다음에 돌아와서 예물을 바쳐라.”(마태 5,23-24)

교형자매 여러분,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성당에도 잘 나오지 못하고 미사와 봉사활동 등에 참여하지 못하면서 내적으로 많이 힘드셨으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공포와 걱정을 끼치는 이 상황에서도 우리를 버리지 않고 함께 해주시는 우리 주님의 사랑을 확신하면서 우리 주님처럼 넉넉하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우리 자신과 우리 이웃을 바라보며 기도할 때, 이처럼 어려운 상황을 이겨내면서 작은 ‘부활체험’을 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아멘.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 갈 수 없다.(요한 14,6)”**

스위스의 수호성인 성 니콜라오 데 플리예를 기리기 위해 세운 Kapelle St. Niklausen ob Kerns 성당. 한 수도자가 성당으로 가는 길을 오르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길이 언제나 편하고 쉬운 길만으로 이어지는 않았지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길을 믿고 따르면 언제나 영원한 삶이라는 목적지에 이를 것으로 믿습니다.



김승길 세실리아 | 가톨릭사진가회